

Cherry Canyon

# 대일양주보

제 115호  
10/30  
1959

서기 1959년 10월 30일  
단기 4273년 10월 30일

|     |           |
|-----|-----------|
| 사장  | 최백렬       |
| 주필  | 김창원       |
| 발행소 | 동지회관내     |
|     | 북킹거리 93-1 |
| 대금  | 1년 10원    |
| 전화  | 850849    |

## 미국의 철강 노동조합 파업 제트공소원, 핏스버그, 합중국 법정의 노동법명령을 지지 단, 상고에 첫일간의 기한을 허가

(와싱턴 27일발, 에이피) '히라델피아' 제트공소원의 3명의 판사는 27일, 전에 '핏스버그' 합중국 법정의 내린 철강, 강, 스틸라이프 등의 50만명에 대해서 81일간 부업을 명령한 판결을 지지하는 판결을 내리고, 이 판결에 대해서 노동조합측이 미국대심원에 상고하는 경우, 상고준비기간으로서 첫일간의 기한을 허락하였다. 따라서 노동조합측은 이 첫일간중, 파업을 계속하여도 문제가 되었다.

이 판결에 대해서 노동조합측은 변호사는 첫일간의 유예기간이 경과되기 전에 상고하겠다고 의사를 표시하였는데, '윌리엄 라자스' 검사총장은 상고준비기간을 첫일이나 줄 필요가 없었느냐까 자기는 27일 오전 11시까지로 대심원이 이 기한을 단축하도록 수속을 취하겠다고 발표하였다.

'라자스' 검사총장의 조치는 '태플트-허트레이' 법에 의해, 50만 명의 파업자를 속히 복업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 것이다.

## 상고기한을 단축시키려는 정부측 요구를 대심원이 거부

(와싱턴 29일발, 에이피) 제트공소원이 철강 노동조합 50만

HAWAIIAN  
NEWSPAPER  
STACKS



(제 1면에 계속)

의 직간부귀를 명명하는 합중구 지방재판소의 법정명명권을  
지키하는 판결을 내리는 한편 노동조합측에 합중구 대심원에  
상고하는 준비기한으로 첫인간은 준비서에 대해 정무측은 상고의  
추진을 노동조합측에 지령하도록 28일 강력히 소망하였는데  
대심원은 아무 말없이 이 소망을 거부하였다

이것으로써 노동조합측은 원일의일까지 상고하면된다

또 철강 스트라이크는 백칠일째를 마치 하였다

또 지난 일요일에 중단의어장은 노동자측과 고용주측의 정식  
최고회의가 29일 오후 재개되었다

### 노·수노회합안

노·수노회합안 2월 27일

### 노·수노회합안 2월 27일

(와싱턴 29일 밤 로도) 아칸사스주 대령은 28일의 정예  
기자회견에서 서측 4국은 불관서의 강력한 요구로 27일 중순에  
서측 노회합안을 개회하리라 고 시사하였다

아 대령은 4개인으로서는 더 빨리 서측 노회합안을 열려는  
생각으로 있었는 데, 드물 대령은 노회합안에서의 하향 동시  
수회합안의 조기 개최에 대해서 불관서 정부로서는 여러가지 이유로  
이를 잠시 연기하였으면 좋을것다고 전하였다 그후 대령은 노  
우회 다시 서한으로 서측 노회합안을 27일 중순에 열는데  
동의한다는 유언이 있었다 라고 말하고 동시 노회합안을 열내  
에 열것은 시기상조라는 드물 대령의 견해를 미영양국이  
허는 수회합안 수락한것을 명백히 하였다

이로 인해서 와싱턴 외교부에서는 동시 노회합안은 빨리야  
내년 2월 하순 내지 3월 중에 열리지 않다가 관측하고 있다

그 이유로서는 아 대령은 2월 중순에 항의의 미의회에 의문반고서  
예산부채 정재보고 기타 고서국의 제출로 분주할것이며  
와싱턴을 떠날수없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 국련전 가맹국이 동맹서준총결의안 제출국

(기록 三十九일 밤, 국련) 국련의 동맹서준총결의안에는  
가맹국 八十二개국 전부가 결의안 제출국으로 참가하였다.  
전가맹국이 일치하여 결의안 제출국으로 된 것은 여태까지 없었던  
이름이다.

이번에는 여태까지 결의안 제출국에 가담한 것이 없었던 「이스라엘」  
와 「아랍」 제국도 참가하였으며, 소련과 중국이 같은 결의안의  
제출자가 된 것도, 금시초문의 이름이다.

이번의 준총결의안은 이란국의 안에 의한 것이 아니고, 모든  
제안안을 내년에 三월 제네바에서 열리는 동맹서준총회 회의에서  
협약하기로 되어 있다.

## 미소의 문화화공구 시작 소련 문화화사의 보고서

(동맹서준총결의안 三十八일의 「라스 투링」 회의 하면 「미하의」로  
소련 문화사는 동맹의 최고 회의에서 소련의 대외 문화 활동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이 보고 하였다.

- 1. 소련은 현재 七十개국이 상과 문화적 관계를 맺고 있다.  
국제협정 또는 개개의 계약의 형식으로 금년 안으로 七十명  
이상의 문화인이 해외에 나갔으며, 「바레소」의 극장 「바레이단」  
레닌그라드 오페라 「바레이단」 모스크바 예술단 등이 해외  
에서 공연하였다.
- 1. 미소 문화관계도 재개되었다. 「기록」 교향악단을 의시하여  
민중은 연주자 문화대표 영화 연구계 대표가 소련을  
방문하였다. 가카히 제 1회 미소영화의 밤이 양국에서  
개회되었다. 또 미국 미술전이 모스크바에서 열리니 소련의  
교향악단, 「기록」 가수들이 가카히 이국을 방문한다.



# 소련의 달의 탐사 계획 및 달의 탐사 계획의 중요성

(와인스턴 처칠의 발언) 소련이 우주에 공표한 달의  
리본의 사진과 소련 과학자들에 의한 산맥, 바다, 항만 등의 이름은  
지은 것의 대해서 미국 정부의 공식 견해는 아직 영백하지 않았  
는데 과학자들은 이에 대해서 다음의 3점을 주목하고 있다.

## 1. 소련의 달 탐사 계획의 의의

소련이 달의 리본의 사진 촬영에 성공한 것은 후진국인 '스웨덴'의  
발사의 실패의 타격을 미국 과학계에 주었다 아직까지 미국 과학자들은  
'스웨덴'에 촬영 장치가 있는지 모르는지 분명히 의심하고 있었다.  
또 '스웨덴'이 달의 리본을 과연 리본에서 돌았기 때문인  
촬영 장치가 있었는지도라도 신제에 의해서 신제에 의해서  
의심하고 있었다 그러나 '라스', '통신'의 발표에 의하면 '후진국인  
스웨덴'은 미국의 예산을 이기고 '월림'에 의해 사진을 찍을 수  
'카메라'의 장치를 가지고 있었으며 달로부터 첫 번째 사진  
피리진) 지령으로 부터 40분간의 걸쳐서 많은 사진을 찍고  
'월림'의 현상, 정착 등 모든 것을 자동적으로 할 수가 있었다.  
이로 말미암아 미국의 과학자들은 대단히 놀라움을 표시하였다  
미국은 수월한 수준의 '에트라'의 의의를 라켓트를 달 주위로  
발사하는데 이것의 실패를 촬영 장치는 일종의 레이다에 의해서  
달의 상태를 잡을 수 있다 이것을 지령으로 전파에 의해 송신시켜  
사진을 만드는 점으로 소련의 지에 비하면 월림의 지면의 지면의  
모르고 있었다

## 2. 달의 리본의 의의

영국까지 몇몇의 동양, 미영 등 선진 지방 과학자들의 손  
으로 발견되자마자 월림의 (의의)를 짓는 것) 달의 표명과 기  
달과 그 달의 리본의 영영은 수월한 의의 후진국인 '스웨덴'의



발사 이래 트루먼주의에 역사에 전례가 없었던 소련 1국의 힘으로  
7개의 지점에 이름을 지어 버렸다. 미국의 과학진으로서는  
다만 안에서 구경만 하는 셈인데 내심으로는 실망감으로 가득  
차고 있다. 「타스」 「통신」에 의하면 7개의 지점중 「모스코바」의  
이름이 2개, 「소비에트」가 1, 소련 과학자의 이름을 딴 것이 2  
소련의 태양 후성왕의 이름이 1, 각각 명명되었는데 단 하나의  
외국인의 이름이 나왔다. 「조리우」 쿨리모 「쿨리」가 붙인 것  
공신당 감부였었기 때문에 부친 것으로 이것도 서방 과학계에  
대한 존경의 표시는 전대로 아니라고 보고 있다.

### 1. 소련의 새 국은 외교적 수리

후성왕 스테이판의 사친찰영 그 자체는 외교정책은 물론이지나와  
군사적 영향조차 없었다. 하나의 천문적 사업적이라고도 여정부측에서는  
말하고 있으나 2개기 최대의 과학적 성과라고 볼수 있는 음반의  
달의 리면의 차영은 아무에게나 이해할 수 있는 것으로 소련  
과학의 우수성을 전세계에 표시한 것이나 이것으로 소련의  
기초과학 군사력에 대해서는 경쟁력과 공영보생신력등의  
높은 수준을 세계에 인식하는 큰 역할을 하게 된다. 두 개의  
라임스 에 의하면 서구의 아데나우어 수상마저 이번의 후성왕  
스테인의 성공의 결과 미국의 힘에 대한 신뢰의 감을  
이렇게 되고 과학의 지고 있다. 한편 후성왕 스테이판은 물론  
는 지 증거를 볼 때까지는 신의 영인한다고 미국 언론에 말하고 있던  
트루먼, 노스 양씨는 달의 이면의 사친찰영이라는 암모니아  
반작용을 밝히지 않겠다고 있다.

후성왕 스테이판의 성공은  
전 세계의 과학자들에게는  
신앙의 대상이다. "너는 수산암"

(이것이 달의 2차의 리면) (이것이 "너는 수산암"은 물론이다  
부활의 구경의 시의 구경의 치명적 대해지 구경이 생겼다. 고발과  
하고 이면의 대해지 구경에 흐르지 말고 내정히 하도록 정  
화였다.





경주부내의 사적지인 신라시대 고분군

경주부내의 사적지인 신라시대 고분군에 대한 고고학적 발굴조사 결과, 신라시대 고분군의 분포와 특성에 대해 밝혀내었다. 이 고분군은 신라시대의 정치적, 경제적, 문화적 배경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단서를 제공한다.

고분군

고분군은 신라시대의 고대 문화를 보여주는 중요한 유적이다. 이 고분군은 신라시대의 정치적, 경제적, 문화적 배경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단서를 제공한다. 고분군의 분포와 특성에 대해 밝혀내었다.

신라시대 고분군의 분포와 특성에 대해

고분군의 분포와 특성에 대해 고고학적 발굴조사 결과, 신라시대 고분군의 분포와 특성에 대해 밝혀내었다. 이 고분군은 신라시대의 정치적, 경제적, 문화적 배경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단서를 제공한다. 고분군의 분포와 특성에 대해 밝혀내었다.

고분군의 분포와 특성에 대해

고분군의 분포와 특성에 대해 고고학적 발굴조사 결과, 신라시대 고분군의 분포와 특성에 대해 밝혀내었다. 이 고분군은 신라시대의 정치적, 경제적, 문화적 배경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단서를 제공한다. 고분군의 분포와 특성에 대해 밝혀내었다.

고분군의 분포와 특성에 대해

고분군의 분포와 특성에 대해 고고학적 발굴조사 결과, 신라시대 고분군의 분포와 특성에 대해 밝혀내었다. 이 고분군은 신라시대의 정치적, 경제적, 문화적 배경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단서를 제공한다. 고분군의 분포와 특성에 대해 밝혀내었다.

고분군의 분포와 특성에 대해

고분군의 분포와 특성에 대해 고고학적 발굴조사 결과, 신라시대 고분군의 분포와 특성에 대해 밝혀내었다. 이 고분군은 신라시대의 정치적, 경제적, 문화적 배경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단서를 제공한다. 고분군의 분포와 특성에 대해 밝혀내었다.



